

12

December 2024
vol. 279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Gift Special



TRINITY
Cartier



SEEK THE ORANGE
ENCOUNTER THE FAUBOURG



Contents

06_SELECTION 포근하고 따뜻한 성탄절을 위한 레드.

08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0_해마다 조금씩 더해가는 역동성, 그리고 자신감 해마다 11월을 수놓으며 점차 브랜드 인지도를 키워나가고 있는 현대미술 축제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 내국인 위주의 소프트 론칭으로 시동을 걸고 이듬해 해외 방문객들을 맞이한 지도 4년 차에 접어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아트 페어인 아트 컬래버레이션 교토 역시 며칠 앞서 개최되는 지라 아시아 미술계에서 11월은 일본이 '짙'한 듯한 모양새인데, 둘 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를 교토행에 이어진 도쿄행은 묘한 경쟁 심리가 느껴지는 두 도시가 각자 얼마나 다른 매력을 강렬하게 품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부분 어색하고 서투르게 느껴지던 요소들이 점차 퍼즐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의 축제형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데도 '만 시간의 법칙'이 통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글로벌 플랫폼을 겨냥한 전략적 틀의 아기가 점차 맞아 들어가는 모양새가 눈에 띈 현상이었다.



까르띠에의 트리니티 컬렉션은 옐로·핑크·화이트 골드, 3개의 밴드로 이루어진 특별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트리니티는 사랑, 신의, 우정의 의미를 담아낸 메종의 아이콘으로, 원형부터 쿠션 형태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77-4326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13_불굴의 창조혼, 27년 만에 일본을 찾은 현대미술 거장 지난 가을 아트 위크 도쿄 기간에 일본의 거대한 메트로폴리스, 도쿄에서 수많은 행사가 펼쳐졌지만 방문객들 중 상당수는 롯폰기 힐스에 자리한 모리 미술관을 0순위로 찾았을 듯하다. 단연코 볼록버스터로 꼽히는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다(2024. 9. 25-2025. 1. 19). 9m가 넘는 높이의 커다란 청동 거미 조각으로 유명한 루이즈 부르주아의 70년에 걸친 위대한 창조 여정을 아우르는 회고전으로, 일본에서 27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형 전시다. 잘 알려졌듯 모리 미술관이 들어선 모리타워 야외 공간에는 '마망(Maman)'이라는 청동 거미 작품 한 점이 특유의 오라를 뿜어내며 수호신처럼 자리하고 있다(2003년부터). 감상평을 돌려 말하자면, 단지 이 전시를 보러 도쿄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엄지 척'을 해주고 싶다.

14_MAGICAL HOLIDAY 메종 까르띠에가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아이코닉한 피스를 기념하는 캠페인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유지선들이 만드는 가장 행복한 멜로디와 캠페인에 등장하는 까르띠에 아이템들이 자아내는 마법 같은 연말의 낭만.

18_HOLIDAY GIFT IDEAS 101 셀렘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연말, 당신의 마음을 대신해 줄 취향 있는 홀리데이 선물 가이드.

38_EDITOR'S PICK 그동안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 12월의 홀리데이 뷰티 리스트.



Lock by Tiffany

1883년 브로치에서 영감을 받은 타임리스 아이콘

영원한 마음을 약속하는 특별한 선물

Tiffany & Co. © 2024 RSCO.



가볍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의 알파 파일 터틀넥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선명한 컬러감을 자랑하는 커널리언을 더한 18K 로즈 골드 스위트 알함브라 워치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시그너처 바게트 백 모티브가 귀여움을 자아내는 바게트 크리스마스볼 30만원대 펜디.



올 트윈드로 캐주얼한 무드를 배가한 백백, 28x26x11cm, 가격 미정 샤넬.



청기한 굵과 레드 GG 프린트 디테일을 가미해 록에 포인트가 되어줄 러버 솔 모카신 1백97만원 구찌.



레드 세라믹과 다이아몬드, 18K 옐로 골드와 핑크 골드 소재의 조화가 돋보이는 콰트로 레드 스물링 5백만원대 부쉐론.

Selection

포근하고 따뜻한 성탄절을 위한 레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스타일리시한 프레임에 갖춘 아세테이트 소재의 다다 RC6 34만원 쉐들론스터.



다이아몬드 70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35mm 케이스가 광채를 선사하는 클래식 투르비옹-3358BR/8D/986D0 가격 미정 브레게.



드라이벌 컬렉션 하트 세이프 루비와 멀티 세이프 다이아몬드 세팅 이어링 가격 미정 그라프.



18K 로즈 골드 소재에 커널리언으로 장식하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8백55만원 불가리.



귀여운 포인트가 되어줄 볼카도트 캐시미어 실크 네커치프 39만원 알프 로렌 퍼플 라벨.



카프스킨 소재의 다르세나 파우치백, 32x21.5x18cm, 3백41만원 토즈.



골드와 멀티컬러 마간의 금속으로 완성한 비비엔 Xmas 백 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벨벳으로 제작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메리제인 빌레 플랫 1백25만원 페라기모.



39mm 스테인리스틸 케이스와 감각적인 질러를 입은 다이얼의 조화가 돋보이는 론진 레전드 다이버 5백만원 론진.



시그너처 모노그램 디테일로 패셔너블한 무드를 배가한 오토마르 맥시 비세토스 워켄더 백, 20.5x46x27.5cm, 2백15만원 MCM.

펜디 02-544-1925 루이지비아로마 customerservice@uisaviaroma.com 로로피아나 02-6200-7799 샤넬 080-805-9628 토즈 02-3438-6008 구찌 02-3452-1921 페라기모 02-3430-7854 쉐들론스터 070-4128-2122 리모와 02-546-3920 그라프 02-2256-6810 알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루이 비통 02-3432-1854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부쉐론 02-3467-8334 론진 02-3479-1940 불가리 02-6105-2120 MCM 1600-1976 브레게 02-6905-3571



튼튼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한 트렁크 플러스, 80x37x41cm, 2백만원대 리모와.

에디터 윤지영 스타일리스트 임태영



BVLGARI

ROMA 1884



Unique Travel Mate

리모와의 그루브 디자인은 1950년대 항공 산업의 황금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브랜드 시그니처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그루브를 담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오리지널 캐빈 옵티컬(Optical)'을 선보인다. 그루브 디테일이 눈앞에 사라졌다 등장하기를 반복하는 듯 오묘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기하학 패턴을 통해 브랜드의 아이코닉 디자인 코드를 재해석했다. 알루미늄 소재에 브러시드(brushed)와 언브러시드(unbrushed)의 중간을 표현하는 섬세한 터치를 더해 역동적으로 아른거리는 효과를 구현한 것. 이 모든 공정은 브랜드의 역사가 담긴 독일의 쾰른 공장에서만 진행해 고유의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여행 중 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주는 리모와만의 압축 시스템 '플렉스 디바이더'를 포함한다. 문의 02-546-3920

Get it Bag

샤넬 2024-25 크루즈 컬렉션은 심해로 모험을 떠난다. 사랑에 빠진 작은 물고기, 어망, 조개껍데기와 조개 디테일을 더한 드레스, 수트 재킷, 조끼, 파우(foie) 블라우스, 티셔츠, 짧은 베스트로 심해를 구현했다. 또 수면 위 햇빛이 반사되는 모습과 굽이치는 물결을 표현해 수영장에서 보내는 여름날의 추억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모티브는 네오프렌 같은 저지, 트위드, 시퀀 재킷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컬렉션에 포함된 사이니 램 스킨 소재 호보 백은 여러 개의 포켓 디자인으로 수납력을 높여 실용적이다. 또 하우스의 로맨틱하면서도 모던한 블랙 컬러로 완성해 클래식한 룩에도 잘 어울리며, 캐주얼한 룩에도 재적이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영원한 상징 N°5

샤넬에게 5는 숫자 이상의 상징이다. 아직도 샤넬은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했던 숫자 5에서 무한한 영감을 받고 작품을 창조한다. 샤넬 확인 주얼리의 N°5 컬렉션이 그런 작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골드로 만든 숫자 5 모티브의 굴곡진 실루엣을 따라 영원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가 흐르는 디자인은 우아하고도 아름답다. 또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숫자 5 모티브를 더욱 빛나게 한다. 샤넬의 대담함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독보적인 확인 주얼리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그중 이 제품은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이터널 N°5(ETERNAL N°5) 브레이슬릿이다. 여성의 가녀린 손목을 우아하게 감싸며 강렬한 포인트를 준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Romantic Holiday

에이피 뷰티가 연말을 맞아 'Unveil Your Beauty Beyond', 본 적 없는 새로운 아름다움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홀리데이 한정판 기프트 패키지와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특별히 아모레퍼시픽의 독창적인 사육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는데, 사육의 직선적이고 견고한 디자인을 겨울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표현해 홀리데이 무드를 극대화했고, 점점이 펼쳐지는 별빛의 우아하고 정교한 디테일을 통해 사육의 건축 콘셉트인 'connectivity(연결과 소통)'와 브랜드의 지향점 'Apex of Skincare'를 함께 담아냈다. 캠페인 기간 에이피 뷰티 백화점 매장을 방문하면, 한정판 기프트 패키지 서비스와 럭키 드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 설렘 가득한 홀리데이 무드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80-023-5454



연말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패션 클러치 3. (위부터 차례대로) 퍼플 컬러의 부드러운 실크 소재에 크리스탈 오브제를 더해 클래식하면서도 화려한 무드를 담은 핑크리 버클 클러치 2백 63만원대. 로저 비비에. 문의 02-3479-6115. 리본이 연상되는 실루엣으로 핑크 컬러 메탈릭 램 스킨 소재에 골드 톤 메탈 로고를 라블러한 스타일을 완성해줄 클러치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하트 형태의 클러치로 한 손에 잡히는 미니 사이즈이며 리본 손잡이 장식을 더해 유니크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담은 실버 크리스탈 하트 클러치 71만원대 셉프 포트레이트. 문의 02-6911-0836 포토그래퍼 최민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The Masterpiece

20세기 가장 재능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잔 솔렘버제는 복잡하고 정교한 디자인을 창조한 탁월한 예술가다. 그의 디자인을 보노라면 마치 위대하고 섬세한 자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주얼리 매종 티파니는 이런 잔 솔렘버제의 작품을 하이 주얼리로 출시하며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버드 온 어 락'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잔 솔렘버제의 컬렉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링은 프랑스 알자스의 텍스타일 상인 가문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공부한 잔 솔렘버제의 유년기를 반영한 디자인이다. 섬세하게 직조한 텍스타일 같은 느낌을 주얼리에 적용해 독특한 매력을 전하는 것이 특징. 18K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 소재에 총 1.14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했다. 문의 1670-1837



PARTY, PLEASE!



DUAL REPAIR LIFT CREAM

에이피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



리프팅 특수 케어 2X 시너지

리프팅 2주 전	리프팅 24시간 후	리프팅 4주 후
+42% ¹	+202% ²	+213% ³
피부 밀도	손상* 회복	피부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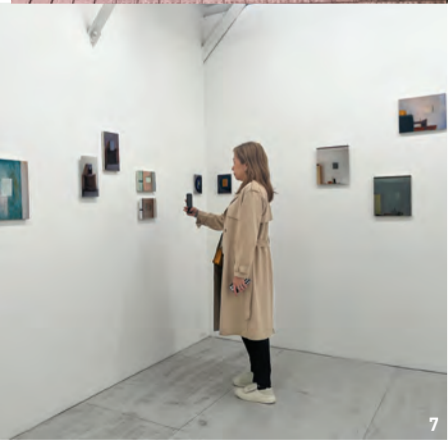
아트 위크 도쿄(AWT) 2024

해마다 조금씩 더해가는 역동성, 그리고 자신감

해마다 11월을 수놓으며 점차 브랜드 인지도를 키워나가고 있는 현대미술 축제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 내국인 위주의 '소프트 론칭'으로 시동을 걸고 이듬해 해외 방문객들을 본격적으로 맞이한 지도 수년이 흘러, 이제 이 글로벌 행사는 4년 차에 접어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아트 페어인 아트 컬레버레이션 교토도 역시 며칠 앞서 개최되는지라(내년엔 며칠 뒤가 될 예정) 아시아 미술계에서 11월은 마치 일본이 '짙'한 듯한 모양새인데, 둘 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AWT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인 '웨스트 번드 아트 앤드 디자인'과 살짝 겹치기는 하지만 둘 다 '겹림' 가능한 일정이다). 올가을 교토행에 이어진 도쿄행은 묘한 경쟁 심리가 느껴지는 두 도시가 각자 얼마나 다른 매력을 강력하게 품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부분 어색하고 서투르게 느껴지던 요소들이 점차 퍼즐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의 축제형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데도 '1만 시간의 법칙'이 통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하루에 10시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3년 정도 걸린다는 셈법을 느슨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글로벌 플랫폼을 겨냥한 전략적 특의 아귀가 점차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띈 현상이었다.



The Gallery Scene



아자부다이 힐스의 메가 갤러리부터 골목길의 작은 갤러리까지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는 현대미술 장터로 일컬어지는 아트 페어가 아니라 '도시 산책'을 하듯 시내 곳곳에 있는 갤러리와 미술관을 돌며 관람하는 쇼케이스형 축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이 행사 기간에는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전용 버스도 40대 넘게 운영된다. 'AWT PASS'라는 모바일 앱을 내려받

아 동선을 짜면 된다(올해는 40개 갤러리를 포함해 53개 기관·조직이 참여했다. 11. 7~10).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인에게, 그리고 도쿄를 방문하는 타지인에게도 (우리와) 현대미술사를 알리는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2년 전 도쿄에서 만난 아트 위크 도쿄 공동 창립자 니나가와 아스코(Atsuko Ninagawa)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갤러리(다케 니나가와)를 이끄는 갤러리스트이기도 한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 도쿄의 갤러리들이 자신들의 예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는 설명을 보낸 기억이 있다. 당시만 해도 미술 시장이 아트 페어를 중심으로 한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지만 도쿄는 동시대 미술 거러가 활성화된 편이 아니었기에, 도시 자체의 브랜드 파워를 염두에 뒀을 신중한 결정이었다. 건축, 음악, 디자인, 미식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품은 메가 시티 아닌가.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은 막강한 아트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과의 협업 체제를 꾸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미술 컬렉터들과의 '네트워킹'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제 그 효과가 눈에 띈다. 올해 AWT에는 4천여 명의 VIP가 등록했

1 아트 위크 도쿄 2024 키 비주얼 이미지. 2 아자부다이 힐스에서 바라본 도쿄 타워 모습. 모리 그룹에서 지은 복합 단지로 영국 출신 토머스 헤더윅을 비롯해 세계적인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3 페이스갤러리 도쿄에서 열린 아트 서킷(Ariene Shechet, b. 1951)의 일본 첫 개인전 <Beyond Belief> 설치 모습(12월 21일까지). 4 실제로 우체국이었던 건물에 터를 잡은 일본 갤러리 웨이팅룸(WAITINGROOM) 외관. 5 재일 교포 갤러리스트가 운영하는 동명의 갤러리 이사이에서는 AWT 기간에 다나카 슌스케 작가의 회화 작품을 전시해 호응을 얻었다. 6 도미오 고바야시, 수고야츠 등의 갤러리가 입주해 있는 콰르텟스 665. 7 주로 일본 작가들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요코유키 갤러리에서 열린 노자와 유타카 작가의 개인전 <Still Life> 모습. 자난가를 아트 바젤 파리의 '이머전스(Emergence)' 부문에 참가한 갤러리다. * 2-7 Photo by 고성연

데, 그중 8월이 해외 컬렉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찍이 무라카미 다카시 등 일본 작가들과 꾸준히 협업했고 도쿄에도 10년 전 진출한 갤러리 블룸(BLUM)의 공동 창업자 팀 블룸은 "요즘 일본에 대한 새로운, 다시 불붙은 짐작 같은 게 생겨난 것 같다"며 "아시아에서 서든 서구에서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도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AWT 기간에 하종현 개인전을 연 블룸은 이번에는 일본의 스타 작가 나라 요시토모 전시를 선보였다. 사실 이 작가는 페이스갤러리 소속이기도 한데, 마침 요즘 '핫한' 새로운 복합 단지 아자부다이 힐스에 페이스갤러리 도쿄가 입점했다(역사상 체급이 가장 큰 갤러리의 도쿄 입성이다).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다. 꼭 미술품을 사지 않더라도 도쿄 여행을 기꺼워했던 컬렉터들은 자연스럽게 중소 갤러리들의 발견도 즐기게 된 듯하다. 예컨대 필자도 AWT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법한 도쿄 메구로의 작은 갤러리 이사이(LEESAYA)가 그런 사례였다. 2019년 문을 연 이사이야는 도정 의식을 지닌 컬렉터를 타깃으로 하는데, 지난해 아트 타이에이에 참가했고, 내년에는 케이이파트론(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갈 예정이다.

큐레이터의 '브랜드 파워'와 '내공'의 조화를 보여준 부티크 페어

사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AWT의 존재감이 그렇게 살갑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다. 현지인들로서는 갤러리와 미술관을 반드시 AWT 기간에 찾아야 할 이유가 없고, 굳이 전용 버스를 타야 할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외국인들도 VIP 버스로 미리 짜인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렇지만 도쿄를 잘 모르는 이방인, 특히 문화 예술 애호가에게는 AWT가 이 도시의 숨은 매력과 재능을 더 잘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이 공간에만 접할 수 있는 세일즈 플랫폼인 'AWT 포커스'를 선보였다. 컨템퍼러리 미술 시장의 규모와 유동성을 감안한 듯 처음에는 페어 중심의 플랫폼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예상되었던, 신중하게 접근적으로 키워나가는 확장형 행보다. '부티크 페어'라 볼 수 있는 AWT 포커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럭셔리 호텔인 더 오후라 도쿄(The Okura Tokyo) 부지 내에 있는 오후라 뮤지엄에서 펼쳐졌는데, 작가/그룹 수는 57개이며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국제갤러리가 양혜규 작가 작품으로 참가했고, 실버넌츠(마닐라/뉴욕),

1 올해 AWT 포커스에 출품된 일본 작가 고바야시 마리코(Mariko Kobayashi)의 텍스타일 작품 'The World Without Possession'(2024). Kotaro Nukaga 갤러리 2 주제가 있는 진지한 기획전 성격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포맷의 부티크 페어인 AWT 포커스는 럭셔리 호텔인 더 오후라 도쿄(The Okura Tokyo) 부지 내에 있는 오후라 뮤지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열렸다. 3 올해 AWT 포커스 설치 모습. Installation view of AWT Focus, "Earth, Wind, and Fire: Visions of the Future from Asia," curated by Mami Kataoka, at the Okura Museum of Art, Tokyo, 2024. Photo by Kei Okano. Courtesy Art Week Tokyo. Pictured in glass case at left: Josaku Maeda, Image of Nirvana, 1960; Yutaka Hata, Work 65-66, ca. 1965-66; and Solange Pessoa, Untitled, from Mandão I, 2017-19 (diptych) * 1, 2 Photo by 고성연



AWT Focus

TKG+(타이베이)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갤러리들이 등장했다(대다수는 일본 갤러리지만 출품한 작가의 국적은 다양했다). AWT 포커스는 여타 아트 페어와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저명한 큐레이터가 이끄는 '미술품' 전시를 강조하는데, 올해는 롯폰기 상점과도 같은 모리 미술관을 이끄는 가타오카 마미(Mami Kataoka) 관장이 큐레이팅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Earth, Wind, and Fire: Visions of the Future from Asia>전으로, 우주론(cosmology)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연구를 토대로 한 자신의 내공을 살려 상업적인 전시(selling show)지만 마치 예술 기관 같은 주제를 지닌 '하이브리드' 포맷에 맞게 잘 버무려내 '역시'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미술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지만 영리한 기획력에 부담스럽지 않은 작품 가격대, 엔저 현상까지 더해 AWT 포커스의 매력에 빛을 발한 것 같다.

Art Spaces



'도쿄'라는 브랜드 파워를 등에 업은 다채로운 공간형 콘텐츠

AWT 포커스가 열리는 오후라 뮤지엄은 특이하게도 도쿄 도심에 있는 더 오후라 도쿄 호텔 부지 내에 있는데, 알고 보면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 원래 창업자 가문의 선대 경영자인 오후라 기하치로가 1917년 설립한 일본 사립 미술관의 후이다. 1960년대 당대의 명망 높은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시가 설계한 호텔도 2019년 대대적인 새 단장 끝에 다시 문을 연 더 오후라 도쿄는 AWT의 파트너가 되었는데, 2023년 AWT 포커스가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티크 페어를 품는 무대로 낙점됐다. AWT는 유망주 후원 차원에서 신진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라운지인 'AWT 바(Bar)'라는 프로젝트 공간을 매년 꾸려오고 있다. 갤러리스트 니나가와 아스코와 더불어 AWT의 또 다른 공동 창립자이자 '큰손' 컬렉터 시라이 가즈나리(Kazunari Shirai)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일부를 '팝업' 개념으로 제공한 공간이다. AWT 2024 행사에는 조경 건축가 도무라 에이코(Eiko Tomura)가 선정되어, 유려한 곡선을 그리는, 하얀 바탕에 식물들이 수놓은 '작품'을 선사했다. 내로라 하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매장이 출중한 디자인을 자랑

1 일본의 조경 건축가 도무라 에이코(Eiko Tomura)의 프로젝트 작품 'Landscape as Bar'. 'AWT 바' 커미션 작품이다. (2024). Courtesy Art Week Tokyo. 2 Exhibition view of "Lizzie Fitch | Ryan Trecartin: It Waives Back"(24. 10. 24-13. 1. 25) Prada Aoyama Tokyo Courtesy Prada Photo © DAICI ANO Lizzie Fitch | Ryan Trecartin Switch Which, 2024 Courtesy of the artists 3 일본 도쿄 근자에 있는 메종 에르메스 건물 외관. 이 건물 옆에 전시 공간인 르 포럼(Le Forum)이 자리하고 있다. 4 사벨 넥서스 홀에서 열린 3인 기획전 (Everyday Enchantment)에서 선보인 비앙카 본디(Bianca Bondi) 작품. 광주비엔날레에도 참가한 이력이 있다. * 3, 4 Photo by 고성연

하는 도쿄답게 이들이 꾸리는 '예술 공간'도 눈여겨볼 만하다. 공간의 미학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전시 콘텐츠도 빼어나다. 올해 AWT 기간에는 에르메스의 도쿄 전시 공간인 르 포럼에서 세토내해를 배경으로 하는 데시마 미술관의 아름다운 설치 작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일본 아티스트 나이트 레이(Rei Naito)의 전시, 루이 비통의 전시 공간인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쿄에서는 인크렛 프린터를 활용해 캔버스에 추상 작품을 빚어내는 미국 작가 웨이드 가이튼(Wade Guyton)의 전시, 건축 거장 듀오가 이끄는 스위스 HdM의 명작으로 꼽히는 프라다 아이오아에서는 미국의 1981년생 동갑내기 듀오 피치 | 트레카틴(Fitch | Trecartin)의 상상력 넘치는 전시를 각각 선보였다. 올해는 사벨도 근자에 위치한 넥서스 홀에서 작가 3인(비앙카 본디, 고바야시 무쿠, 니와 유미코)을 내세운 기획전 (Everyday Enchantment)을 열었다.





2

3

〈Louise Bourgeois〉_모리 미술관(Mori Art Museum) 불굴의 창조혼, 27년 만에 일본을 찾은 현대미술 거장



지난가을 아트 위크 도쿄 기간에 일본의 거대한 메트로폴리스, 도쿄에서 수많은 행사가 펼쳐졌지만 아마도 방문객들 중 상당수는 룩퐁기 힐스에 자리한 모리 미술관을 0순위로 찾았을 듯하다. 단연코 '블록버스터'로 꼽히는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다(2024. 9. 25~2025. 1. 19). 9m가 넘는 높이의 커다란 청동 거미 조각으로 유명한 루이즈 부르주아의 70년에 걸친 위대한 창조 여정을 아우르는 회고전으로, 일본에서 27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형 전시다. 잘 알려졌듯 모리 미술관이 들어선 모리 타워 야의 공간에는 '마망(Maman)'이라는 청동 거미 작품 한 점이 특유의 요라를 뿜어내며 수호신처럼 자리하고 있다(2003년부터). 미술을 잘 모르는 행인들도 '거미 조각이 있는 광장'으로 기억할 정도로 상징적이다. 그러니 모리 미술관에서 열리는 루이즈 부르주아 회고전에 더욱 기대 섞인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감상평을 돌려 말하자면, 단지 이 전시를 보러 도쿄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엄지 척을 해주고 싶다.

The Museumscape

일본 현대미술을 알리는 데 안팎으로 힘을 모으는 행보

'아트 주간'을 단단히 받치는 힘은 역시 미술관 전시에서 비롯된다. 도쿄에는 공공이든 사립이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지만, 'art week'라는 콘셉트는 확실히 전시 퀄리티를 유심히 살펴보고 진지한 태도로 감상함으로써 통찰력을 얻게 도와주는 이점이 있다. 일본의 문화 예술을 체계적인 것으로 포지셔닝하려는 노림수가 반영된 전략이든,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덜 조명된 작가들을 소개하려는 의도든, 지난 가을 도쿄의 전시 풍경에는 일본의 현대미술 계도를 짚어볼 수 있는 전시가 많이 눈에 띄었다. 정부 차원의 후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AWT를 계기로 확실히 응집력이 커진 듯한 느낌이다. 우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NACT)은 AWT에 열린 자세로 협업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기관이다. NACT에서는 지난해 해 프라다 아오야마 매장에서 선보이기도 했던 일본 팝 아티스트 다나야미 게이이치(Keiichi Tanaami) 회고전이 AWT 주관을 기해 막을 내렸고, 전위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는 아라카와-나시 에이(艾 Arakawa-Nashi) 전시를 개막했다. 동양의 엔드 워홀이라는 별칭을 얻은 다나야미 게이이치는 스스로를 '이미지 디렉터'라 칭하며 고급문화와 하위문화, 동서양의 경계를 넘나든 전설적인 아티스트로 무라카미 다카시, 나라 요시토모 같은 오늘날 세계 미술계에서 각광받는 일본 현대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존재이기도 하다.

- 1 일본 도쿄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외관. 2, 3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일본의 전설적인 팝 아티스트 다나야미 게이이치 회고전
- 2 〈Keiichi Tanaami: Adventures in Memory〉(2024. 8. 7~11, 11). 다나야미 게이이치는 NACT에서의 대형 회고전 개막 뒤에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4 도쿄의 또 다른 주요 현대미술관 MOT에서는 일본의 선구적인 미술품 수집가 다카하시 류타로 소장품전이 열렸다(2024. 8. 3~11, 10). 나라 요시토모(왼쪽)의 회화 작품과 가토 이즈미의 조각(오른쪽)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 5 일본 네오팝 아티스트 미스터(Mr.)의 작품들. 6 간자에 자리한 아티스트 뮤지엄에서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로 주목받는 모리 유코 개인전 〈On Physis〉가 열리고 있다(2025년 2월 9일까지).
- 7 야경 속 아티스트 뮤지엄 외관.
- 8 Yuko Mohri, Sketch for Piano Solo: Belle-île, 2024. Courtesy the artist and Artizon Museum. * 1~7 Photo by 고성연

작가가 개막한 지 이를 만에 작고하는 바람에 유고전이 된 이 전시는 끝났지만, 서울에서 그의 또 다른 전시를 볼 수 있다. 서울 통의동에 있는 대림미술관에서 작가의 주요 작품 7백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다(2025년 6월 29일까지). NACT에서는 홍콩 M+와 손잡고 진행 중인, '일본 현대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가 내년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전시 기획을 이끄는 정도면 M+ 부관장이 AWT 주간에 직접 개요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다른 도쿄의 주요 현대미술관인 도쿄도 현대미술관(MOT)에서는 일본의 선구적인 미술품 수집가 다카하시 류타로(Ryutarō Takahashi) 소장품전이 개최됐다. 구사마 야요이, 무라카미 다카시, 미스터(Mr.), 나라 요시토모, 가토 이즈미 등 국제 무대에서도 잘 알려진 작가들만이 아니라 일본 현대미술의 한 페이지를 수놓은 여러 작가를 한데 모아놓은 '생생한 공부' 같은 전시였다. 전후의 고도성장 신화와 그 그늘에 가려진 사회문제 속에서 나타난 예술과 하위문화의 관계를 날카롭게 해부하는 글을 일부 '시각적으로' 풀어놓은 느낌이었을까. 간자의 아티스트 뮤지엄에서는 일본 미술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전시를 선보였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 작가이자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로 주목받는 모리 유코(Yuko Mohri) 개인전 〈On Physis〉(2025년 2월 9일까지). 모리 유코는 이숙경 예술감독이 이끈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둘은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 작가와 감독으로 다시 만났다. 글 고성연



4



5



2



3

도쿄에 갈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들르는 모리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에 자리한,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의 대표작 '마망(Maman)'. 8개의 얇고 기다란 다리를 땅에 단단히 뺨은 채로 앉아 있는 이 거미 조각을 가까이에서 보면 배 속에 대리석으로 만든 32개의 알이 담긴 주머니를 품고 있다. 강렬하고도 우아한 카리스마로 광장을 지켜주는 듯한 작품은 실제로 작가에게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던 어머니에게 바치는 '송가'.

"어머니는 마치 거미처럼 천을 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테피스트리 복원 사업을 했고, 어머니는 작업장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거미처럼 매우 영리했죠. 거미는 질병을 퍼뜨리는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거미들은 우리 어머니처럼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루이즈 부르주아가 스무 살 때 모친이 세상을 떠났고, 이는 그녀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파리 태생으로 소르본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던 그녀가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이기도 하다. 자신의 갤러리를 차려 일하다가 만난 남편과 함께 뉴욕으로 가서 여생을 보낸 부르주아는 프랑스에서의 유년 시절이 남긴 기억과 상처, 트라우마를 작업의 토대로 삼았다. 자신의 가정교사와 불륜 관계였던 아버지인 인한 것이었다. "내 작업은 고통과 상처를 정화하고 치유하는 투쟁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 그녀는 평생을 예술 안에서 버텼다. 하나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부드러운 직물 작업부터 드로잉, 회화, 조각, 퍼포먼스 등을 아우르는 그녀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바느질과 직조를 예술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다. 뒤늦게 주목받았지만 1982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여성 작가 최초로 회고전을 가졌고, 1999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필자는 사실 모리 미술관 전시가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 정도 접고 있었다. 자연재, 오스트리

- 1 모리 미술관에서 지난 9월 말 개막한, 루이즈 부르주아의 최초 여정을 아우르는 회고전 포스터.
- 2 Installation view: Louise Bourgeois: I have been to hell and back. And let me tell you it was wonderful, Mori Art Museum, Tokyo, 2024 Photo: Kenta Hasegawa © The Easton Foundation/Licensed by JASPAR, Tokyo, and VAGA at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2024.
- 3 Installation view: Louise Bourgeois: I have been to hell and back. And let me tell you it was wonderful, Mori Art Museum, Tokyo, 2024 Photo: Kenta Hasegawa © The Easton Foundation/Licensed by JASPAR, Tokyo, and VAGA at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2024.
- 4 Louise Bourgeois, The Runaway Girl circa 1938 Oil, charcoal, and pencil on canvas 61x38.1cm Photo: Christopher Burke © The Easton Foundation/Licensed by JASPAR, Tokyo, and VAGA at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5 Louise Bourgeois, Topiary IV 1999 Steel, fabric, beads, and wood 68.6x53.3x43.2cm Photo: Christopher Burke © The Easton Foundation/Licensed by JASPAR, Tokyo, and VAGA at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6 Louise Bourgeois, Untitled (I Have Been to Hell and Back) 1996 Embroidered handkerchief 49.5x45.7cm Photo: Christopher Burke © The Easton Foundation/Licensed by JASPAR, Tokyo, and VAGA at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아 빈에서 그녀의 초기작을 주로 선보인 전시 〈Persistent Antagonism〉을 보고는 그야말로 정한 전율을 느껴서였다(좋은 전시는 많지만 감동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수미일관의 예술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간 그녀가 노년에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접하니, 그녀가 소속된 스위스 갤러리 하우저앤워스의 창업자들이 부러워지기까지 했다(처음에는 다소 까탈스럽고 예민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만능을 거듭하며 인연을 맺게 됐다)는 내용이 우르슬라 하우저의 책에 있다. 그리고 필자가 마누엘라 워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진실이었음을 새삼 느꼈다.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인 동시에 어머니이자 아내, 그리고 심오한 사상가이자 굴하지 않는 창조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모리 미술관의 회고전 〈Louise Bourgeois: I have been to hell and back. And let me tell you, it was wonderful〉은 다른 종류의 감동으로 다가왔다. 루이즈 부르주아의 커리어 전반에 걸친 1백여 점의 작품 수로 인한 규모의 미학도 있지만, 벽 전면을 감싸는 대형 스크린으로 내보내는 영상을 비롯해 여러 매체를 활용한 전시의 미학이 돋보였다. 그동안 루이즈 부르주아의 문장을 프로젝트 영상으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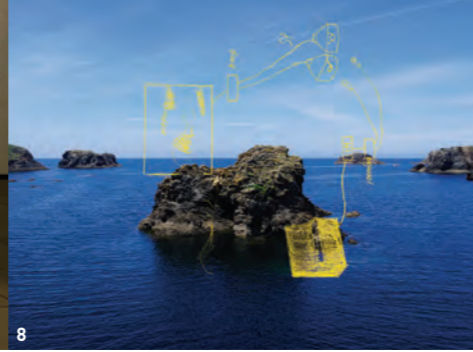
보여온 후배 작가이자 동시대 여성 작가 제니 홀저와의 협업도 반가웠다. '날 버리지 마세요(Do Not Abandon Me)'라는 제목의 전시 1부는 어머니의 죽음(1932)에서 기인했을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고, 부친에 대한 거부감, 그의 사망(1951)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과 극복을 위해 기울인 처절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2부(전시 제목과 동명의 작업이 있는)로 이어지며, '예술은 제정신이라는 증거다(Art is a guaranty of sanity)'라는 문구로도 유명한 루이즈 부르주아의 예술 속 생존을 담은 마지막 3부로 끝을 맺는다. 전시의 직조도 훌륭했지만 작품 한 점도 허투루 보고 지나칠 게 없는 거장의 선물 같은 전시다. 모리 미술관을 이끄는 가타오카 마미(Mami Kataoka) 관장이 말했다 "그녀의 작품은 인간의 근본적 감정을 건드리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애잔하기 그지없는 예술가의 투쟁이 그래도 위안으로 남는 이유는 전시 첫머리에 적힌 그녀의 글귀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My childhood has never lost its magic, it has never lost its mystery, and it has never lost its drama(내 어린 시절은 마법을 잃은 적도 없고, 미스터리를 잃은 적도 없으며, 드라마를 잃은 적도 없다.)' 글 고성연



6



7



8



4



5



6

Magical Holiday

매종 까르띠에가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아이코닉한 피스를 기념하는 캠페인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뮤지션들이 만드는 가장 행복한 멜로디와 캠페인에 등장하는 까르띠에 아이템들이 자아내는 마법 같은 연말의 낭만.



아름다운 3가지 요소의 조화

3가지 골드 소재와 3개의 링으로 이루어져 사랑을 상징하는 트리니티 컬렉션이 홀리데이 시즌을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준다. 1924년 출시되어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트리니티는 옐로·핑크·화이트 골드 링을 조화롭게 결합한 디자인으로 3개의 링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 모든 형태의 사랑을 표현하는 동시에 매종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트리니티는 루이 까르띠에의 상상력에서 탄생했는데, 당시 모든 규칙을 완전히 깬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주얼리를 모던하게 표현한 과감한 시도로 인정받는다. 3개의 움직이는 밴드로 이루어진 링의 유연함부터 디자인의 단순함, 그리고 상징적인 강렬함까지, 트리니티는 단연 시대를 앞서나갔다. 매종은 이러한 트리니티의 디자인을 끊임없이 변형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재해석했다. 시간이 흐르며 트리니티는 고급스러운 소재부터 예상치 못한 특별한 소재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스타일을 접목해 매종만의 대답함을 뽐냈다. 통합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트리니티의 서로 얽힌 링들은 우리를 연결해주는 많은 것들에 대한 은유다.

- 1 까르띠에가 선보이는 홀리데이 시즌 캠페인.
- 2 옐로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전체적으로 세팅해 화려한 멋을 자아내는 LOVE 브레이슬릿 스몰 모델.
- 3 심플한 LOVE 디테일과 옐로 골드 소재의 조화가 돋보이는 LOVE 브레이슬릿 미디엄 모델.
- 4 옐로·핑크·화이트 골드의 하모니가 특징인 트리니티 컬렉션.
- 5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소재의 LOVE 브레이슬릿 클래식 모델.

순수함의 상징, LOVE

캠페인에서는 LOVE 컬렉션의 스몰, 오리지널, 미디엄 피스가 차례대로 자리해 마치 리듬감을 더하며 도-레-미 음계를 완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1969년 뉴욕에서 까르띠에 디자인자 알도 치폴로가 탄생시킨 LOVE 브레이슬릿은 2개의 평평하고 단단한 아치 형태의 주얼리로 구성되었다. 순수한 라인과 정확한 비율, 동일한 타원 형태, 정교한 디테일이 조화를 이뤄 깔끔하고 모던한 무드를 자아낸다. 특별히 고안한 드라이버로 나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기능적이기도 하고 장식적이기도 한 스크루를 숨기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른 이들이 감추는 것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까르띠에 주얼리의 대담한 직관력이 엿보인다. 또 전용 드라이버로만 스크루를 풀어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은 연인들의 열렬한 사랑을 대변한다. LOVE 컬렉션은 브레이슬릿을 포함해 링, 네크리스, 이어링까지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린다.





Maud Remy Lonvis © Cartier

황홀한 시간의 연속

까르띠에에서는 홀리데이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황홀하고 환희에 가득 차게 만들어줄 펜더 드 까르띠에와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컬렉션을 소개한다. 우선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는 1904년 탄생한 이래 까르띠에의 아이코닉 세이프 워치 레퍼런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손목에 착용하기 위해 디자인한 최초의 워치로, 1904년 루이 까르띠에가 자신의 친구이자 비행사 산토스-뒤몽이 비행 중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그는 베젤에 8개의 노출된 스크루를 더한 사각형 시계를 디자인했고, 이는 곧 까르띠에 워치메이킹 디자인의 상징이 됐다. 라운드 워치가 지배하던 시대에 사각 형태 디자인을 선보이며 고정관념을 깨고 극도의 단순미와 간결한 라인을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산토스의 베젤 디자인은 스트랩과 케이스를 잇는 날렵한 라인이 특징이며, 손목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 밀리그램 및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으로 정확하게 완성했다. 덕분에 어디서든 느껴볼 수 없는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그리고 1983년 론칭한 펜더 드 까르띠에 워치는 주얼리 워치 콘셉트로 선보였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메종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장 독특한 디자인 특징 중 하나는 브레이슬릿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극도로 유연한 브레이슬릿 구조가 메종의 상징적 동물인 팬더의 움직임 연상시킨다. 또 곡선 형태의 폴라싱 링크로 이뤄져 매우 유연하며 손목에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인체 공학적인 모습에서 우아함도 느껴진다. 또 워치 가장자리를 등골게 처리한 사각 케이스부터 끊어지지 않고 곡선을 이뤄 스트랩으로 이어지는 뿔처럼 생긴 혼, 매우 섬세한 리벳까지, 메종만의 여성스러운 디자인 코드를 담아내 부드럽고 간결한 실루엣으로 완성했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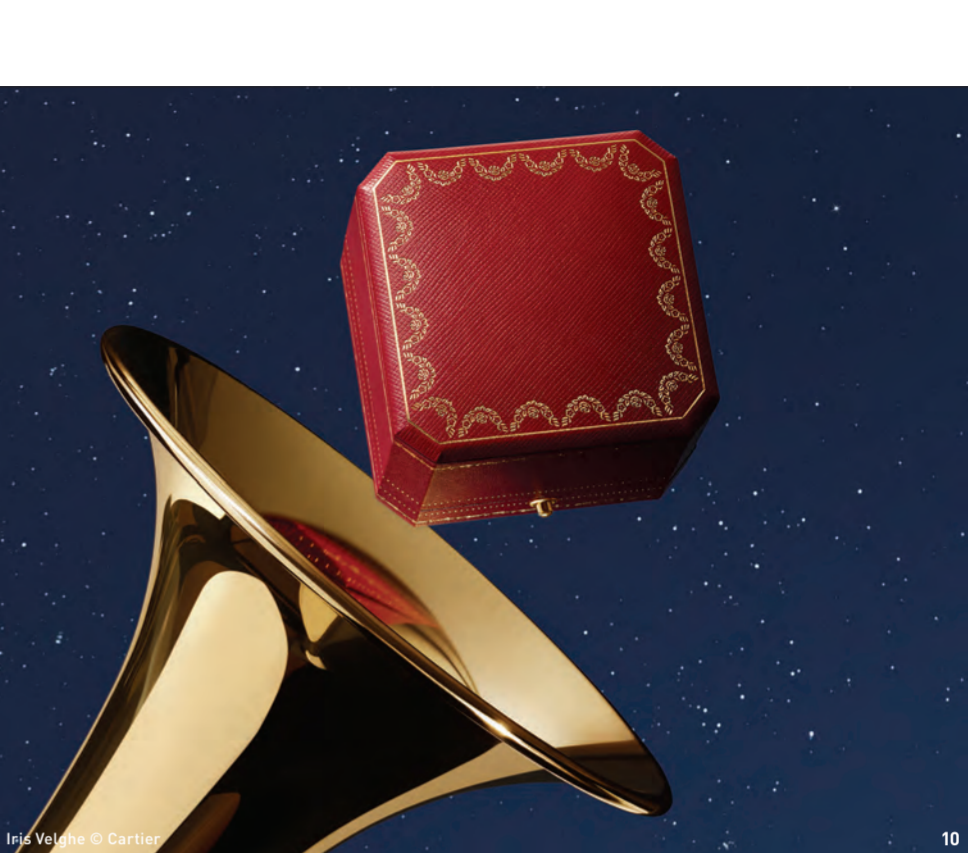
Iris Velghe © Cartier

8

아름다운 헌신의 아이콘, 못

저스트 앵 끌루는 그저 평범하게 여기던 것을 고귀하게 바꾸어주는 마법 같은 순간을 기념하며 홀리데이의 의미를 다시 짚어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컬렉션은 기독교 관련 책을 읽던 디자이너 알도 치폴로가 아이디어를 얻어 1971년에 탄생시켰다.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용기라는 문단을 본 그는 한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일주일 전부터 십자가형을 받을 때까지를 묘사한 록 오페라 <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 그 생각을 옮겨가, 파격적인 형식과 록 음악의 자유분방함에 주목했다.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는 저스트 앵 끌루의 전신, 네일(Nail) 브레이슬릿의 디자인을 완성했다. 당시 네일 브레이슬릿이라고 불리던 평범한 못 모터브에 그의 아름다운 디자인이 더해져 특별한 주얼리가 탄생한 것이다. 이어 펜던트 이어링과 브로치로 이뤄진 컬렉션을 선보이기에 이르렀고, 2012년 화려하게 다시 돌아오면서 이 매력적인 크리에이션에 저스트 앵 끌루라는 이름이 붙었다. 창의성이 돋보이는 이 못 모터브는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메종의 비전을 대변한다. 까르띠에가 하나의 주얼리 피스로 변모시킨 못에는 네 가지 중요한 디자인 원칙이 담겨 있다. 순수한 라인, 정확한 형태, 정밀한 비율, 고귀한 디테일이 그것이다. 디자인에 담긴 선과 형태, 볼륨과 조화의 균형을 통해 정밀한 비율이 구현된다. 브레이슬릿이 손목을 완벽하게 감싸는 모습에서 이러한 정밀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저스트 앵 끌루 컬렉션에는 옐로 골드와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및 스크루 헤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 혹은 눈세팅한 버전을 포함하며, 링과 브로치, 네크리스, 이어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심을 탈피하는 못에서 영감을 얻은 실루엣이 독립적이고 대담하며 자유분방한 매력을 선사한다.

- 6 아이코닉하고 모던한 사각형 실루엣의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와 곡선 형태의 폴라싱 링크로 완성한 브레이슬릿이 특징인 펜더 드 까르띠에 컬렉션.
- 7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케이스가 우아한 멋을 전하는 펜더 드 까르띠에 워치 스톤 모델.
- 8 못 모터브로 순수한 라인을 선보이는 저스트 앵 끌루.
- 9 매력적인 타원형 실루엣을 자랑하는 베누아 워치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탱크에서 받은 영감으로 탄생한 탱크 워치.
- 10 까르띠에의 홀리데이 캠페인 이미지.



Iris Velghe © Cartier

10

우아한 홀리데이를 위하여

1917년 루이 까르띠에에 의해 탄생된 탱크 워치는 제1차 세계대전 시 사용된 탱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고, 최대한 간결한 실루엣으로 모든 오브제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는 까르띠에의 열망을 통해 순수한 라인으로 발전되었다. 시계의 구조가 명확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루이 까르띠에가 위에서 바라본 전투 탱크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샤프트로 바퀴 트랙을 표현하고, 모던한 케이스에 탱크 포탑의 구조를 담았다는 이야기가 메종에 전해져온다. 또 그는 1922년 디자인을 새롭게 다듬어 케이스를 늘리고, 샤프트는 좀 더 정제된 스타일로 바꾸었으며, 가장자리는 부드럽게 변형했다. 그렇게 해서 탱크 루이 까르띠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루이 까르띠에는 레일 트랙, 카보송 컷 사파이어, 로마 숫자 등 까르띠에의 시그니처 워치메이킹 코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또 베누아 워치 또한 까르띠에 워치메이킹 역사의 중심에 있다. 1912년 전통적인 원형 워치에 지루함을 느낀 루이 까르띠에는 새로운 형태의 워치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고민 끝에 평범한 원형 시계를 길게 늘여 우아한 타원형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워치를 탄생시켰다. 이 새로운 워치는 육조를 닮은 듯한 모습에 프랑스로 육조를 뜻하는 '베누아(Baignoire)'라는 이름을 얻는다. 메종의 전통이 깃들여 있는 베누아 워치는 옐로 골드 소재의 관능적인 타원형 실루엣이 대담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상징적인 오벌 형태를 뱅글에 적용함으로써, 태양처럼 빛나는 원형의 골드가 손목을 감싸는 완벽한 주얼리 워치로도 손색없다. 또 손목에 최대한 밀착해 감싸는 곡선 형태 케이스 때문에 더욱 관능적인 매력을 강조한다. 뱅글 버전의 베누아는 핑크 골드, 옐로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버전 등 다양한 모델로 출시되었다. 심플하고 우아한 디자인 덕분에 메종의 다른 크리에이션과 레이어링해 스타일링하기에 제격이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윤지경



Iris Velghe © Cartier
Maud Remy Lonvis © Cartier

9

HOLIDAY GIFT IDEAS 101

셀렘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연말, 당신의 마음을 대신해줄 취향 있는 홀리데이 선물 가이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YI JU HYUK,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왼쪽부터 차례대로) 스틸과 세드나 골드로 이뤄진 지름 25mm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베젤과 인덱스, 독특하게 처리한 퍼플 컬러 다이얼이 돋보이는 쿼츠 무브먼트 워치 컨스텔레이션 1천5백만원대, 지름 41mm 스틸 케이스에 고급스러운 무드를 더하는 버건디 컬러 다이얼을 매치했으며,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 오메가 8802로 구동하는 드 빌 프레스타지 41MM 7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02-6905-3301.



(왼쪽부터 차례대로) 피부 리메어 효과를 선사하고 활력을 깨우는 프리미엄 고농축 나이트 컨센트레이트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누 30ml 92만8천원, 리필 78만8천원. 다음 단계 사용 제품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피부를 정돈해주는 동시에 강력한 리메어 효과를 선사하는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로씨옹 125ml 44만5천원, 피부에 활력을 채우고 리메어 효과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고농축 리메어 크림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크림 50g 82만1천원, 리필 69만8천원 모두 샤넬 080-805-9638, www.chanel.com.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루비, 코랄을 다채롭게 세팅한 18K 핑크 골드 소재의 미모사 네크리스 가격 미정 **다이아니** 02-515-1924, 지름 29mm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총 4.1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아몬드 오발 워치 1억8백52만원 **소파드** 02-6909-3790, 핑디 바게트 백을 모티브로 탄생했으며 플로럴 아이리스 향을 담은 라 바게트 오 드 파퓸 100ml 45만원 **펜디** 02-544-1925, 오간자 실크에 반짝이는 크리스탈로 장식해 연달 파티 룩의 수조로 제격인 라니아 3백63만원 **지안비토** 로시 02-3479-6129, 네이비 벨벳 소재에 디테일한 주얼리 장식 핏팅과 버클을 더한 플라워 스트라스 주얼 액세서리 미니 백 4백90만원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유유 단백질 성분을 담아 피부를 탄력 있고 화사하게 케어해줄 브이 펌 세럼 30ml 46만원 **발몽** 070-4352-5203, 프레드 하이로 컷 다이아몬드가 중앙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 주변으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스텐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프레드** 02-514-3721.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재활용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르 발블레 1천1백57만원 **비엔비탈리아** 02-3447-6000, 18K 레드 골드 케이스를 장착했으며, 12시 방향에 문페이즈 디스플레이가 위치한다. 자체 제작 32800 칼리버로 구동하는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문페이즈 37 2천9백10만원 **IWC** 1877-4315, 광물, 블랙베리와 무화과, 지두 향이 느껴지는 블랑 드 누아 아상블라주 No. 4 가격 미정 **아르망 드 브리** 02-2188-5100, 총 89.8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라프 오벌과 페어 셰이프, 그리고 레디언트 팬시 옐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02-2150-2320, 그린 컬러의 신데이 브러시 다이얼이 유니크하며, 3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예거 르골트르 898을 탑재한 랑데부 데줄링 나잇 & 데이 그린 가격 미정 **예거 르골트르** 1877-4201, 브라운 컬러의 양가죽으로 제작한 원터 고미노 앵클부츠 2백18만원 **토즈** 02-3438-6008, 2G 로고 메탈 버클로 장식한 카프 스킨 소재의 리버서블 벨트 가격 미정 **자방시** 02-6905-3630, 주름과 다크 스폿을 개선하고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는 바이탈 퍼펙션 업리프팅 앤 펌 50ml 15만원대 **시세이도** 080-564-7700, 자카드 실크 트릴 소재의 스카프 가격 미정 **샤넬** 080-805-9628, www.chanel.com.



(위부터 차례대로) 18K 베이지 골드 소재에 시그니처 칼링 모티브로 디자인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베이지 골드에 마름모꼴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유니크함을 부여한 코코 크러쉬 스톤 링,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코코 크러쉬 미니 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www.chanel.com.



(위부터) 로즈 골드 에 스타, 스퀘어, 트라이앵글 등 유니크한 세이프의 세팅 기법으로 차보라이트, 블루 사파이어, 핑크 투르말린, 블루 지르콘, 데인토이드, 레드 스피넬 각 2개와 페리도트, 루비 각 4개, 탄자나이트와 옐로우 사파이어 각 6개로 장식한 이코니카 멀티컬러 밴글, 18K 로즈 골드로 이뤄진 독특한 체인 스타일 에 4.2캐럿 다이아몬드 4백22개로 고리를 완성한 포인트 이코니카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02-3143-9486.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린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가 하모니를 이루 화려하고 고상한 품격을 드러내는 글로잉 워브 네크리스 가격 미정 **피아제** 1668-1874, 11개 다른 연도의 와인 1백46개를 배합해 풍부한 풍미와 향을 자랑하는 크루그 그랑 퀴베 172 에디션 가격 미정 **크루그** 02-2188-5100,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며 새롭게 선보인 PH 아티초크 가격 미정 **루이스루센** 070-4286-3556, 반짝이는 미러 라미네이트 마감의 카프 스킨 소재로 제작한 허그 미니 백 2백95만원 **페라가모** 02-3430-7854, 지름 42mm 핑크 골드 케이스에 스키텐 다이얼이 멋스러움을 배가하며, RD512SQ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한 엑스칼라버 모노투르비옹 블루 아워 3억3천50만원 **로저드뷔** 02-3479-1403, 다이아몬드, 옐로 다이아몬드, 블랙 오팔, 에메랄드, 핑크 사파이어 등 다양한 원석으로 신비스러운 무드를 선사하는 디올라마 & 디올라기미 이어링 가격 미정 **디올 하이주얼리** 02-3280-0104,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시티 오브 드림라이트 컬렉션의 더 파운데이션 110 28ml 36만원대 **클레드보** 보테 080-564-7700, 원한의 유명한 휘장인 바이에른 다이아몬드를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제작한 아프레 스� 메탈릭 폴리메스터 퀴트 패딩 2백5만원 **MCM** 1600-1976.

(위부터) 2025 봄 시즌 아방 레 데뷰 컬렉션 제품으로, 사랑스러운 리본 디테일을 가미한 라미네이트 키드 스킨 소재 보와우 펌프스 1백39만원, 다이아몬드 패턴의 퀴팅 구조가 특별함을 더하며 톤온톤 스티치로 윤곽을 살린 나파 가죽 소재의 체인 미디어 슬더백 퀴티 67 4백54만원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위부터) 2025 봄 시즌 아방 레 데뷰 컬렉션 제품으로, 사랑스러운 리본 디테일을 가미한 라미네이트 키드 스킨 소재 보와우 펌프스 1백39만원, 다이아몬드 패턴의 퀴팅 구조가 특별함을 더하며 톤온톤 스티치로 윤곽을 살린 나파 가죽 소재의 체인 미디어 슬더백 퀴티 67 4백54만원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위부터) 버진 울 소재에 카프 스킨을 더해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며 실용적인 스트랩과 사이즈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엑스트라 백 L27, 오렌지 컬러 카프 스킨이 매력적인 엑스트라 백 L27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02-6200-7799.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레드 컬러의 탄셀 소재로 제작했으며 수작업으로 마감한 크리스털 스트랩을 더한 빙 펌프 플랫폼 1백53만원 **지미추** 02-3479-1837, 총 25,22캐럿의 2천1백6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유려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루시아 퀘스천마크 네크리스 가격 미정 **부웨론** 02-3467-8334, 더블 G 버클과 크리스털 체인 디테일이 특징인 그레이 페이퍼트 레더 하이힐 슬링백 펌프스 2백50만원 **구찌** 02-3452-1921, 바카라의 시그니처 샴페인 글라스 여섯 가지로 구성된 샴페인 버블 박스 2백30만원 **바카라** 02-3448-3778, 셀룰라 아이리샤 바이오 액티브 및 아이리샤 알바 성분을 담아 인타메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퍼펙트 리프트 리치 크림 50ml 87만5천원대 **스위스퍼펙션** 1644-4490, 총 2,57캐럿의 1백50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해 심플하고 세련된 무드를 가미하는 갤럭시 이어링 가격 미정 **루이 비통** 02-3432-1854, 견고한 화이트 세라믹과 18K 옐로 골드로 완성한 케이스, 약 0.09캐럿의 12개 다이아몬드 세팅 인디케이터가 특징인 J12 다이아몬드 베젤 워치 칼리버 12.1, 가격 미정 **샤넬 워치** 080-805-9628, www.chanel.com, 브라운 버건디 컬러로 홀리데이 포인트 림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스파이크 발렌티노 510R 이츠 루비 타임 2.3g 6만7천원대 **발렌티노**는 뷰티 02-2015-4655.

(위부터)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머더오브펠 다이얼과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듯 세팅한 6개의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며, 투르비용 위 45개의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유성 모양 브리지가 신비스러운 무드를 자아내는 클래식 투르비용 3358 2억2천 8백45만원, 지름 38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소수의 스위스 장인만이 구사할 수 있는 그랑 피 에나멜 기법으로 제작한 블루 다이얼로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자아내는 클래식 5177 그랑 피 블루 에나멜 3천9백94만원 모두 **브레게** 02-6905-3571.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총 0.13캐럿의 다이아몬드와 머더오브펠이 돋보이는 로즈 골드 소재의 다버스 드림 테크닉스 5백10만원 **불가리** 02-6105-2120, 입체적인 셰이프가 특징인 윈더 백 2백75만원대 **미우미우** 02-541-7443, 프리즈마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메디에 드 뽀아레 부드르 모노 301 평방 8g 12만원대 **보아레** 02-310-5025, 부드러운 사틴 파니시를 자랑하는 루쥬 알뤼르 레스트레 927 오렌지 플레르 2g 7만2천원 **샤넬** 080-805-9638, www.chanel.com, 데코 팰리스 인그레이빙으로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다이아몬드 세팅 알라타 컵 위치 가격 미정 **피아제** 1668-1874, 익스클루시브 매트릭스 콤플렉스로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선사하는 라이프 매트릭스 오프 레주베네이션 크림 50ml 2백63만3천원대 **라프레리** 02-6390-1170, 가벼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한 캐빈 사이즈의 해피 홀리데이 캡슐 #MY4810 트롤리 1백75만원 **몽블랑** 1877-5408, 핑크 골드 소재의 케이스와 블루 가죽 스트랩이 우아한 멋을 드러내는 리틀 랑에 1 가격 미정 **랑에 운트 죄네** 02-2150-2460, 메달리온 모티브가 돋보이는 더블 브레스트드 부클레 자카르 재킷 3백2만원 **에트로** 02-3446-1321.



(위부터) 크리스마스 로즈를 기념하는 주얼리 컬렉션으로 그레이 머더오브펠 소재의 꽃잎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드 노엘 클립 미니 모델 1천 5백90만원대, 그레이 머더오브펠에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가운데를 장식한 로즈 드 노엘 이어링 미니 모델 2천5백50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위부터 차례대로) 벨벳 소재에 아이코닉한 삼각 로고 포인트로 사랑스러운 록 연출을 돕는 헤어 클립, 페이퍼트 소재에 은은한 광이 스타일러시한 록을 완성하는 앵클부츠, 유행을 타지 않는 실루엣으로 우아한 록을 완성해주는 갤러리아 백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02-3442-1830.



(위부터 차례대로) 벨벳 소재에 아이코닉한 삼각 로고 포인트로 사랑스러운 록 연출을 돕는 헤어 클립, 페이퍼트 소재에 은은한 광이 스타일러시한 록을 완성하는 앵클부츠, 유행을 타지 않는 실루엣으로 우아한 록을 완성해주는 갤러리아 백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02-3442-1830.

(위부터) 18K 로즈 골드 밴드로 이뤄졌으며 스티럽에 총 0.38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이퀘스트리언 폴 파베 다이아몬드 스티럽 밴글, 로즈 골드에 2개의 스티럽 모티프로 포인트를 주고 그중 하나에 총 0.43 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이퀘스트리언 파베 다이아몬드 더블 스티럽 밴글 모두 가격 미정 **랄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02-3467-6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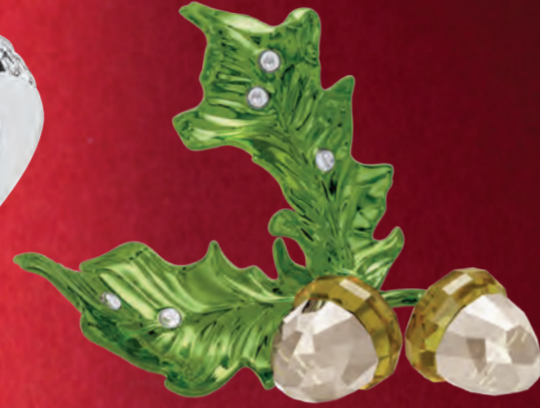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쿠션 컷 에메랄드 주변에 블랙과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카이 라인 링 가격 미정 **스티븐 웹스터 02-2231-1592.**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소재의 영 에르드 쇼메 플룸두르 브로치 & 헤어 오너먼트 가격 미정 **쇼메 02-3442-3359.** 텀플의 크리스털 장식이 돋보이는 스타리 나이트 마스크 선글라스 1백57만원 **로에베 02-3479-1785.** 지름 33.2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해 고급스러움을 배가한 빌레레 우먼 데이트 3천7백만원 **블랑팡 02-3479-1833.** 캐시미어 안감과 2개의 가죽 벨트 모티프가 특징인 유광 램 스킨 소재의 글러브 1백93만원 **에르메스 02-542-6622.** 탈착 가능한 와이드 숄더 스트랩이 있는 Lady D-Lite 백 가격 7백만원대 **디올 02-3280-0104.** 직사각형 옐로 골드 케이스가 특징이며, 쿼츠 무브먼트인 L178 칼리버로 구동하는 미니 돌체비타 골드 3천6백10만원 **루진 02-3479-1940.** 탄력, 리페어, 관체 효과를 부여하는 프리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나이트 엘라시어 6.5ml×8개 75만원 **에이피 뷰티 080-023-5454.**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폴 파베 세팅한 티파니 락 밴글 가격 미정 **티파니 1670-1837.**



18K 핑골드 소재의 지름 44mm 케이스에 총 1백62개의 컬러 젤스톤을 세팅하고 베젤에는 48개의 바게트 컷 컬러 젤스톤을 세팅해 극강의 화려함을 선사하는 박병 유니코 핑골드 다이아몬드. HUB1280 유니코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1억4천만원대 워블로 02-540-1356.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버핏 사이즈에 부드러운 화이트 퍼 소재로 제작한 말렌코 가격 미정 몽클레르 그레노블 0030-8321-0794, 레드 아세테이트 소재의 캣아이 FF 다이아몬드 선글라스 72만원대 펜디 02-544-1925, 그린 컬러 모노그램 헤리티지 캔버스로 제작했으며, 패딩 처리한 강아지 발바닥 모양의 백 잠을 포인트로 더한 풀 반들리에 50 가격 미정 루이 비통 02-3432-1854, 은은한 핑감을 더한 젤리 텍스처로 지속력이 좋은 젤리 슬라임 울-오버 하이라이터 6.7ml 5만9천원대 맥 1644-3748, 케이스부터 다이얼, 브레이슬릿까지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RM 07-01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리차드 밀 02-512-1311, 시트러스 향과 바닐라, 달달한 과일 노트가 조화를 이루는 파네토네 캔들 200g 12만5천원 아쿠아 디 파르마 02-6905-3568, 스텔링 실버로 제작하고 골드 컬러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리스 실루엣이 연말 분위기를 선사하는 크리스마스 실버 오너먼트 1백만원대 부셀라티 02-3440-5613, 플랫 로퍼 스타일에 화려한 비즈 장식으로 완성한 MJ 록 스트라스 애프터선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로즈 골드로 이뤄진 25mm 사이즈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부여한 에이치 아워, 가로세로 25mm의 스틸 케이스에 1백9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은은한 반짝임을 준 에이치 아워, 가로세로 21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머더오브펠 다이얼을 매치해 여성스러운 무드를 자아내는 에이치 아워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에디터 성정민, 윤자경, 신정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름 35mm 케이스에 90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칼리버 1088/1을 장착한 오버사이즈 셀프 와인딩 8천6백50만원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루비의 강렬한 컬러와 블랙 UV 에나멜,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화려한 맛을 배가하는 비틀쥬스 비틀쥬스 링 가격 미정 **파베르제** 02-3442-4706. 상징적 디자인의 라이카 M11 글로시 블랙 가격 미정 **라이카** 1661-0405. 2백54개의 크리스탈 패시어로 도토리 2개를 향상화한 이덜리아 에이콘즈 12만9천원 **스워로브스키** 02-1522-9065. 화려한 홀리데이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줄 팔레트 드 보뎀 콰트로 04 페스티브 글로우 6.1g 10만7천원 **구찌 뷰티** 080-850-0708.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18K 로즈 골드 소재로 완성한 루도 시크릿 워치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금장 장식 버튼과 브라운 & 화이트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페이크 퍼 코트 가격 미정 **프라다** 080-522-7199. 아티스트 장-미셸 바스키아에 대한 헌사를 담은 빈티지 2015 스페셜 에디션 가격 미정 **돔 페리뇽** 02-2188-5100. 페어 컷 다이아몬드 꽃잎 모티프로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한 프레셔스 레이스 미나-프루프루 가격 미정 **쇼파드** 02-6905-3390. 반짝이는 골드 컬러 라인스톤 장식의 메시 디테일 컷프 스킨 펌프스 가격 2백57만원 **돌체앤가바나** 02-3442-6888.



RED LIPSTICK

나스 얼티미트 렉서리 익스플라시 립스틱 언어소라이즈드 클래식한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 완벽한 연말 모임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부드럽고 가볍게 입술에 밀착되어 입체적인 립을 선사한다. 3.8g 5만2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윤자경

Editor's Pick

그동안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 12월의 홀리데이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LUXE CANDLE

펜할리곤스 클래식 캔들 굵간 로즈 강렬한 레드 컬러의 캔들 보틀이 따스한 연말 분위기를 자아낸다. 무엇보다 튀르키예산 장미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스파이시한 무드를 가미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200g 11만2천5백원. 080-363-5454_by 에디터 윤자경

다들 뷰티 디올쇼 5 골워프 - 홀리데이 메이크업 컬렉션 #643 골든 마스크레이드 골드 케이스로 한정 출시한 아이샤도 팔레트. 골드와 버건디 컬러로 화려한 홀리데이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7g 10만4천원대. 문의 080-342-9500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맥 맥스택 마스크라 #블랙 스택 맥 2024 '기프트 오브 골드' 컬렉션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 마스크라. 속눈썹을 연장한 듯한 효과와 컬링으로 눈매를 또렷하게 연출해준다. 12ml 5만원대. 문의 1644-3748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연작 리뉴잉 앰플 무석하고 탄력을 잃은 겨울 피부에 긴급 처방이 되어줄 앰플. 끈적이지 않고 바로 스며들어 촉촉하게 가꿔준다. 피부 컨디션이 급격히 좋아진 듯해 만족스럽다. 30ml 12만8천원대.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성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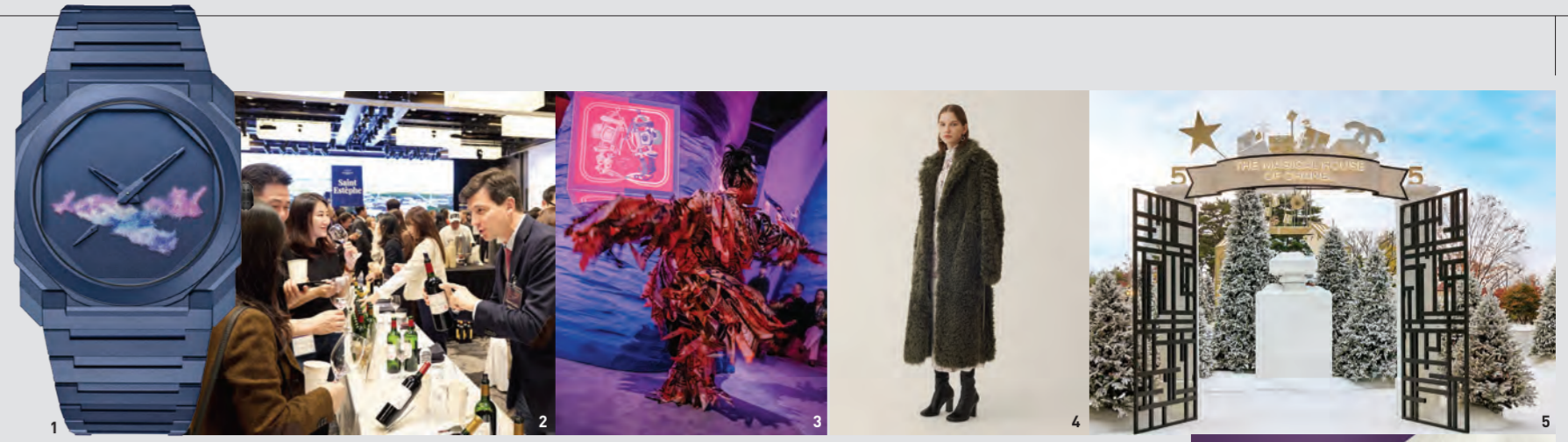
룩시팡 2024 홀리데이 로즈 시트론 메이어나리시 네일 오일 콤팩트한 사이즈로 들고 다니면서 큐티클과 손톱에 영양을 공급해줄 잇템. 7.5ml 2만4천원대. 문의 02-2054-0500_by 에디터 성정민

산타마리아 노벨라 퀘르치아 오 드 퍼퓸 메디치 가든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향수. 상쾌한 라벤더 향으로 시작해 따뜻한 베티베르와 흙 내음이 더해진 아로마 향이 매력적이다. 50ml 24만5천원대.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신정임

NEW CUSHION

둘체앤가버나 뷰티 로즈 글로우 쿠션 #03C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며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리지 않고 차곡차곡 가볍게 레이어링되는 느낌이 만족스러웠다. 15g 6만8천원. 문의 02-6979-1558_by 에디터 신정임

※ 상화일(30일대 리전팅), 오후 7시(30일대 리전팅), 신정임(20대 복합성), 김보민(20대 지+복합성)



1 불가리 옥도 파니씨오 X 로랑 그라스 에디션 불가리에서 프랑스 현대미술가 로랑 그라스와 협업해 '옥도 파니씨오 X 로랑 그라스 에디션'을 선보였다. 전 세계 2백 파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모델은 미니멀하면서 조화로운 디자인의 옥도 파니씨오의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 워치 전체에 미드나잇 블루 컬러를 적용했으며 다이얼 중앙에 대한, 무지개 빛깔의 구름이 반사된 듯한 포인트가 특징이다. 문의 02-6105-2120

2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 보르도 그랑 크뤼 전문인 시음회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nion des Grands Crus de Bordeaux, UGCB)이 주최하는 '2024 보르도 그랑 크뤼 전문인 시음회'가 11월 20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와인 수입업체, 소믈리에 등 다양한 와인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랑스 보르도의 최고 와인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시음회를 진행해 보르도 그랑 크뤼 와인의 품질과 명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문의 www.ugcb.net

3 에르메스 브리드 드 갤럭시 에르메스가 지난 10월, 아름다운 실크를 예약하는 축제 '브리드 드 갤럭시'를 개최했다. 에르메스의 아이코닉한 프린트 '브리드 드 갈라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밸리(Valley), 브리드 드 갈라 워시 프린팅의 낙하산 모티브가 돋보이는 공간인 뉘 바(Dune Bar) 등 다채로운 6개의 팝업 공간과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문의 02-542-6622

4 파비아나 필리피 퍼 코트 제안 파비아나 필리피에서 연말을 맞이해 퍼 코트를 제안한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양털을 사용해 카키 컬러로 제작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탈착 가능한 스웨이드 끈으로 허리를 조이거나 자연스럽게 푸는 등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6960-0834



Showroom

5 샤넬 뷰티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 오픈 샤넬 뷰티에서 홀리데이 시즌을 기념해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잠실 롯데타워 아레나 광장에서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를 운영한다. 친환경 인공 아이스링크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컬러인 골드와 화이트로 구성했다. 아이스링크 중앙에서 샤넬 향수 조형물과 라운드 보틀의 상사 등 샤넬의 다양한 상징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38, 예약 링크 https://enews.chanel.com/2024icerink_public

6 스위스퍼펙션 퍼펙트 리프트 리치 크림 출시 스위스퍼펙션에서 탄력 및 노화 방지 라인 퍼펙트 리프트의 신제품 '퍼펙트 리프트 리치 크림'을 출시했다. 셀룰라 아이리사 바이오 액티브, 아이리사 엑소좀 등의 성분을 담아 피부 노화 억제와 피부 재생부터 주름 개선, 리프팅까지 안티에이징 효과로 최적의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1644-4490

7 포멜라토 품퐁 컬렉션의 새로운 디자인 공개 포멜라토에서 품퐁 컬렉션의 오닉스 펜던트 디자인을 새롭게 공개했다. 기존 양면 펜던트로 제작한 단추 모양의 품퐁 컬렉션을 화이트 다이아몬드 장식이 있는 블랙 오닉스와 로즈 골드 등 다양한 화이트 자개 버전으로 구성해 변화를 주었으며, 그날의 무드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143-9486

8 로로피아나 페코라 네라* 올 이탈리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대표적인 올 시즌인 페코라 네라*를 공개했다. 양을 품종개량하는 과정을 거쳐 블랙·그레이·브라운 털을 지닌 양을 탄생시켜 서로 다른 천연색의 울 세 가닥을 추출한 후 일체적인 직조 과정을 통해 제작했다. 2024-25 F/W 시즌의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200-7799



9 페라가모 2024 홀리데이 캠페인 페라가모가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창의성을 모티브로 제작한 2024 홀리데이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 캠페인은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캔디 포장지로 신발을 만든 것을 모티브로 컬렉션 전 제품을 사탕처럼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슈즈, 백, 스카프 등 다양한 제품으로 선보인다. 문의 02-3430-7854

10 브레게 '레인 드 네이브 8938' 출시 브레게가 타원형 디자인의 레인 드 네이브 컬렉션에서 '레인 드 네이브 8938'을 출시했다. 스노 세팅 다이얼에 화이트 골드 버전과 로즈 골드 버전, 27가지로 제작했으며,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와 4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6905-3571

11 유럽연합(EU) 쿠팡 X 유럽연합 '푸드 위크'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진행하는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유럽 농식품을 소개하는 푸드 위크를 개최했다. 이번 푸드 위크에는 쿠팡이 함께해, 한국 소비자들 집에서 편하게 유럽의 미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의 02-3452-9495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AND NEW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CHANEL

FINE JEWELRY